

광주·전남 고용률 최고에도 제조업은 부진

호남통계청 '11월 고용동향' ...광주 60.2%, 전남 64.8%

광주 농림어업 취업 급증, 전남은 서비스업·건설업 늘어

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와 임시·일용 근로자의 상용 근로자 전환 등의 영향으로 11월 기준 광주 고용률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남지역도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고용률을 나타냈다.

11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고용률은 광주 60.2%, 전남 64.8%로 집계됐다.

전달과 같은 수치를 유지한 광주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증가했고, 전남은 1.1%포인트 올랐다. 두 지역 취업자 수는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지만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은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역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6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부문에서 1만명 취업자가 늘어 11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9000명(6% ↑)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사업·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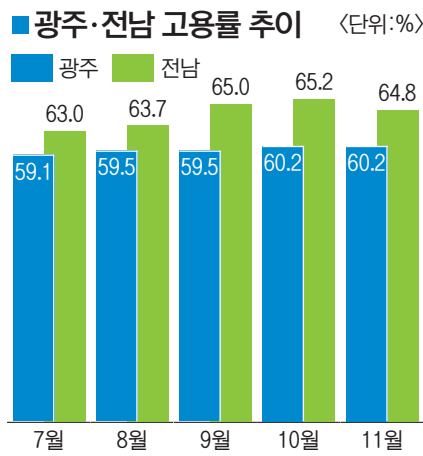
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은 5000명(-1.4%) 취업이 줄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5.2%), 건설업(-3000명·-4.2%)도 취업자 감소폭을 보였다.

전남지역은 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무려 2만6000명(8% ↑) 증가했고, 건설업은 6000명(6.8% ↑) 늘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수(-9000명·-10.5%)는 큰 폭으로 줄었고, 농림어업 부문도 1만3000명(-6.4%) 감소했다.

박기봉 호남통계청 고용팀장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남지역의 농업 인력을 광주 시민이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인 로컬푸드 확대·귀농 열풍 등의 영향으로 광주 시민들이 근교 등으로 나가며 농업인력 공백을 메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시가 전폭적으로 추진한 공공서비스업 고용 확대는 올해 상



대적으로 효과가 반감됐고, 전남지역은 범 정부 차원에서 60대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공공서비스업 고용이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지표상으로는 고용률이 호조를 보였지만 취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업 등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광주지역 11월 전체 취업자 7명 가운데 1명꼴을 차지하는 공공업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1000명(-0.5%) 줄어든 11만2000명을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관리자·전문가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5000명(-2.9%) 줄었다.

전남지역도 조선업의 회복 기미에도 공공업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3000명(-2.5%) 줄며 제조업 부진을 반영했다.

광주·전남은 고용 형태부문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지역 비임금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만2000명(7.5% ↑) 증가한 17만7000명이었고, 이 중 자영업자 4000명(3% ↑) 무급가족종사자 8000명(43.2% ↑) 증가했다. 전남은 자영업자(-8000명) 등 비임금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만4000명(-3.7%) 줄고 임금근로자가 2만7000명(4.5% ↑) 늘었다.

11월 실업자는 광주는 지난해 동기와 같은 2만2000명,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줄어든 1만5000명이었다.

실업률은 광주는 지난해와 같은 2.8%였고, 전남은 0.4%포인트 줄어든 1.5%였다.

한편 전국 고용률은 61.7%로,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5.62 (+7.62) ↓ 금리(국고채 3년) 1.38 (-0.01)
↑ 코스닥 629.13 (+2.02) ↑ 환율(USD) 1194.70 (+3.40)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내일 전분주택 개관

전 세대 남향·친환경 첨단시설
교통망 좋고 교육환경도 우수

HDC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은 13일 광주시 동구 계림2구역 주택개발사업 을 통해 선보이는 '계림 아이파크 SK뷰'의 전분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156-9에 마련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2년 7월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9~26층, 15개동, 총 1715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123㎡ 1101세대다. 일반분양 세대 수는 39㎡ 25세대, 62㎡ 131세대, 72㎡ 298세대, 76㎡ 300세대, 84㎡ 310세대, 123㎡ 37세대 등이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이 일반분양 물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통풍이 좋고, 공기질 관리와 태양광발전,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친환경 첨단 편의시설을 갖췄다.

계림 아이파크 SK뷰는 원스톱 생활 입

지를 갖췄다. 단지에서 직선으로 1.5km 거리에 광주역과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문화전당역이 있다. 제2순환도로를 통해 광주 정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동광주IC 접근성이 좋아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수월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계림초와 광주교대부설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중앙중, 광주고 등 중·고교는 물론 광주교육대, 조선대, 전남대, 동강대 등 다수의 대학교도 인접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에서 직선으로 500m 거리에 마트 동광주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계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특히 푸른길공원이 맞닿아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무등산 등산로 입구가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에서 무등산 조망이 가능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광주시에 공급되는 만큼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렉서스 코리아 '커넥트 투' 방문객 200만 돌파

렉서스 코리아는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커넥트 투(CONNECT TO)' 누적 방문객이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커넥트 투'는 지난 2014년 문을 열어 자동차에 다양한 문화요소를 결합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이날 축하 행사에서는 200만번째 고객으로 선정된 홍지욱(40) 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커넥트 투 포인트를 증정했다.

또 올 한 해 방문고객들이 직접 기부한 책 총 1400권을 사단법인 '행스 기브(Thanks Give)'에 전달, 나눔을 이어갔다. 이 책은 소규모 공부방, 농촌도서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 등에 기증했다.

한편, 커넥트 투는 오는 15일까지 '라이프스타일 위크(LIFESTYLE WEEK)'를 열고 커피 클래스, 영화 관람, 젊은 농부들의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렉서스 코리아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커넥트 투(CONNECT TO)'의 200만번째 방문객이 200만원 상당의 커넥트 투 포인트를 증정했다. <렉서스 코리아 제공>

기아차 새노조 교섭 2주만에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본급 4만원 인상·성과급 150%+320만원 지급 등

지난달 출범한 기아차 새노조가 교섭 2주만에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대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소하리공장에서 16차 본교섭을 열어 '임

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3일 실시된다.

기아차 노사는 6개월 여에 걸친 올해 노사협상에서 무파업으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 이후 매주 2~3회 교섭을 실시했으나, 노

조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라 새 노조 집행부 선출됐고, 지난 달 26일 교섭을 재개할 수 있었다.

노사가 교섭 재개 2주일 만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다. 또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라인수당을 일부 올리는데(S급 5000원 인상)에도 합의했으며,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사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해 '고용안정과 미래생존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생산효율 높인 벼 재배 기술 '밀파육묘' '소식재배' 주목

전남농협, 강진서 시범단지평가회

생산효율을 높인 벼 재배 기술 '밀파육묘' '소식재배'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이날 강진농협 회의실에서 '2019년 벼 밀파육묘·소식재배 시범단지 사업평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밀파육묘' (密播育苗)는 육묘 상자당 벼씨 파종량을 기존(130g)보다 늘린 250~300g으로 뽕뽕하게 뿌려 어린 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소식재배' (消植栽培)는 3.3㎡

당 모내기 하는 포기 수를 37~50포기(기존 80포기)로 대폭 줄여 논에 이앙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들 기술은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영농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본부부는 지난 2월부터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강진농협과 12ha(8개 농가) 규모 시범단지를 꾸렸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는 3.3㎡당 50포기를 모내기하는 것이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REMEMBER & HISTORY

- 1인 크리에이터, 인기·수익 양 날개로 비상
- 나만의 콘텐츠야 떠다
- 크리에이터 꿈꾼다면 눈과 귀를 열어라

2019 문화계 결산

- 문학: 조정래, 송순, 동주문학상 등 의미있는 수상
- 미술: 소통 전시로 각광받은 디자인비엔날레
- 공연: 세계스포츠 축제 무대로 동성했던 여류 공연

기획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⑧
성과 공전의 예술도시
독일 드레스덴

클릭, 문화현장②
문화감성이 발효되는 공간
담양해동문화예술촌

강재운 시인의 남도 성과 토속음식-완
여수 남도의 별미
'갑오징어 돌미나리 초무침'

예향 초대석

우리 감성 무르익은 소리꾼 장시익

"노래에 인생 스며들면 깊은 울림"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⑧
자유를 향해 질주한 시와 생
서울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전시 화제

ACC '공작인: 현대조각과 공예 사이'전

유현준의 도시건축⑤
모닥불, 건축 빅뱅 불 지폈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⑤
'바우하우스의 부처' 클레, 재밌는 예술교육 틀 다졌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영암 한국트롯가요센터에서 만난 하춘화
K리그2 2019 우승 이끈 광주FC 감독 박진섭

승년 기획

안녕 2019, 해넘이 해맞이 명소

역사와 예술의 불꽃

보성 빛 여행

충무공 태백산맥과의 만남
-영종 참태와 독자